

<서 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배가 나침판 없이 향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침판이 없는, 나침판을 보지 않고, 향해하는 배는 그 넓은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향해하다 암초란 것에 의해 좌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먼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다.

그러나 천국이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좌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좌표대로 가지 않으면 좌초하는 배와 같다.

또한 선박이 출항할 때는, 어느 곳에 장애물인 암초가 있고, 언제 태풍이 올 것을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긴 항해에 필요한 Oil, 물, 양식, 의약품 등을 충분히 선적한 후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에는, 고난의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하고, 장애물인 악한 영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여 거기에 필요한 영권을 준비하고, 또한 일용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다.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고, 기도로 능력을 충만케 한 후, 먼 항해를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먼저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나간다면, 분명히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소홀히 한다면 구원의 여망은 사라질 것이다.

- . 성경이 나침판이라면, 창조는 그 나침판의 바늘과 같다.
- . 성경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라면, 창조는 그 방향을 실제로 가르쳐 주는 표시이다.
- .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세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나침판)이고, 창조는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드러난 ‘모습’(바늘)이라고 할 수 있다.
- . 요약하면, 성경은 방향을 알려주고, 창조는 그 방향을 실제로 보여준다.